

## 자기기만적 고양의 방어성 논의\*

최 해 연†      구 자 숙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자기기만적 고양은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오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문화에서 자기기만적 고양 개념이 현실 왜곡과 관련된 방어성을 반영하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1에서 24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만적 고양(Paulhus, 1998a), 적응, 그리고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자기보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기만적 고양'을 많이 할수록 보다 높은 자존감과 적은 심리증상 및 대인관계문제를 보고하였고, 이 중 자기기만적 고양과 자존감 간의 관계는 전능의 방어기제에 의해 조절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연구 2에서는 105쌍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인이 보고한 대인관계 문제 정도와 자기가 보고한 대인관계 문제 정도의 차이를 '준거 대비 자기고양'으로 정의하고 이를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과 비교하였다. 준거 대비 자기고양이 강할수록 자기기만적 고양 점수가 높고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적게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기만적 고양은, 정서적 능력이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평정한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평정한 점수와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기만적 고양에 자기 관련 정보의 인식과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방어적 속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기만적 고양,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고양, 방어성, 긍정성

자신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혹은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향을 의미할까, 현실을 왜곡하는 방어적인 성향을 의미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이미지, 가치, 그리고 태도에 상충하는 경험과 정보에 마주하게 된다. 자기를 좋아해 주기 바라지만 관계가 악화되기만 할 때도 있고,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지만 실패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자기상의 불일치, 자기 안에서 모순적 가치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긴장과 불편감을 느낀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

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고, 실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실제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한다(Alicke, Klotz, Breitenbecher, Yurak, & Vredenburg, 1995; Miller & Ross, 1975). 많은 경우 자기에 대한 긍정적 편향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 강한 동기와 인내를 가지며, 보다 성공적인 수행을 하도록 돕는다(Taylor & Brown, 1988). 그렇지만, 자기의 바람직한

† 교신저자 : 최해연,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chychy22@empal.com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동기는 매우 강하여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인 자기기만적 고양의 측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의 자기 평가가 많은 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왔다. 이런 자기와 관련된 정보 처리에서의 편향은 자기고양 편파(Colvin & Block, 1994; Taylor & Brown, 1988), 사회적바람직성(Crowne & Marlowe, 1964; Paulhus, 1984), 인지적 부조화와 자기정당화(Cooper & Fazio, 1984), 억압과 방어기제(Hilgard, 1949), 신경증적 행동들(Mischel, 1974), 착각적 긍정성(Taylor & Brown, 1988), 그리고 비현실적 낙관성(Scheier, & Carver, 1992) 등 다양한 주제들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고양 현상에 자기기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특정 위기 상황에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시적 자기고양이나, 자기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려는 긍정적 태도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자기기만은 개인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신념들을 가지지만 그 중 한가지만이 의식적인 자각 상태에 있는 과정(Sackeim & Gur, 1978)으로, 개인의 동기나 신념이 의식적으로 자각되는 데 영향을 미쳐 특정 인지들이 선택적으로 의식되지 않도록 한다. 방어기제들도 의식적 자각에 영향을 미쳐 위협적인 정보가 의식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자기기만은 이런 방어기제들에 기저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되었다(Gur & Sackeim, 1979; Hilgard, 1949).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만적 고양을 일반적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이려는 경향(Paulhus, 1991)으로 만성적이고 무의식으로 고양적인 반응을 하는 성격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이러한 자기기만적 고양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적응을 돕는다는 관점(Taylor & Brown, 1988)과 궁극적으로는 역기능적이라는 관점(Colvin & Block, 1994)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자기기만적

고양과 중첩되는 개념인 자기고양과 사회적바람직성에 대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자기고양(self-enhancement, self-serving bias)을 타인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으로 측정할 때, 성격을 비롯한 여러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자기에 대한 평정이 타인에 대한 평정보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존감도 높게 나타났다(Brown, 1986). 마찬가지로 우울한 참가자들의 경우 이들의 사회적 기술에 대해 본인 스스로 평정한 점수와 외부 관찰자가 평정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우울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관찰자 평정에 비해 본인 평정이 유의하게 높았다(Mischel, Chaplin, & Barton, 1980). 이런 결과들에 근거하여 Sackeim(1983)은 자기기만적 고양의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제라고 보았다. 즉, 우울증은 이러한 심리기제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결과이며,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자기기만적 긍정성(Paulhus, 1984; Taylor & Brown, 1988)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기만적 고양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Taylor와 Brown(1988)의 주장은 첨예한 논쟁을 일으켰고, 이를 반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이어졌다. 그 룹과제에 특정인이 기여한 정도에 대해 본인평정과 타인평정 간의 점수 차이로 자기고양 정도를 측정할 때, 자기고양 정도는 제 3의 면접자가 평가한 적응 정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John & Robins, 1994). 또한 자기고양은 단기적으로는 적응적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족감, 심리적 안정, 그리고 학업수행의 저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 & Beer, 2001). 유사하게 자기기만적 고양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첫인상은 좋더라도, 7주 후에는 집단구성원들로부터 방어적이고 적대적이며 사랑하기 좋아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Paulhus, 1998). 부조화감을 없애려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노력은 때때로 자신의 목표, 태도, 신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의 성격에서 가장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에 대해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다(Samenow, 1989). 긍정적인 사고가 적응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더라도, 열등감 콤플렉스보다 우월감 콤플렉스

스가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Myers, 1982).

그런데, 이렇듯 자기기만적 고양의 역할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연구마다 이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Kurt와 Paulhus(2008)는 자기고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사회적 비교 대비 준거와 차이), 어떤 동기가 작용하는지(주도성 대비 친화성), 적응을 누가 평가하는지(자기 대비 동료), 적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개인 수준 대비 관계 수준)에 따라 자기고양과 적응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자기기만 또는 자기고양의 정의와 측정의 문제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과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자신을 전체 평균 이상으로 평정하는지 여부로 자기 고양을 측정하였는데(Brown, 1986) 타인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자기보고식 사회비교 방법은 실제 능력이나 적응 면에서 평균 이상인 사람들과 자기기만적인 고양을 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지닌다(한성열, 2003).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평가(집단구성원, 외부 관찰자, 전문가 면접)를 준거로 두려는 노력들(John & Robins, 1994; Kurt & Paulhus, 2008; Paulhus, 1998)이 이어졌고, 외부 준거와 비교하여 자신의 긍정성을 과잉 추정하여 생기는 차이로 자기 고양을 정의할 때, 이는 장기적인 적응결과와 부정 상관을 보였다.

본인평정 또는 타인평정의 정확성을 판단할 준거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는 동안, '사회적바람직성'으로 대변되는 반응편파에 대한 연구들은 성격, 태도, 그리고 행동에서 자신을 편향되게 보고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사회적바람직성은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려는 경향성(Paulhus, 1990)을 의미한다. Crowne과 Marlowe(1964)는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분명 바람직하지만 실제 행동하기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의 문항들을 다양한 성격검사에서 골라내고 이 중 정신병리와 관련된 문항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33문항의 Marlowe-Crowne 사회적바람직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일련의 연구에서,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인지부

조화 유도 후 개인적인 태도를 더 잘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적으로 회피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특징들은 사회적바람직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고, 이상화된 자기개념을 가지며, 사회적 거부로 인한 자존감의 손상을 예방하려는 방어성의 의미한다고 이해되었다(Assendorf & Scherer, 1983; Crowne & Marlowe, 1964). 즉, 사회적바람직성 척도는 설문지에 반응하는 동안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편파이기보다는 성격의 핵심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Paulhus, 1998). Marlowe-Crowne 사회적바람직성 척도는 반응편파와 억압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주요한 측정치로 활용되어 왔지만, 개발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일부 문항이 현대 사회의 기준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Stober, 1999), 사회적바람직성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척도들이 제안되었다.

Paulus(1984)는 Sackeim과 Gur(1979)의 자기기만과 타인기만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적바람직성이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의 두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자기기만적 고양은 정직하게 반응하려 하지 않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성으로, 인상관리는 대상에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자기기만적 고양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부인하는 정신분석적 성향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기만척도의 문항들은 오직 응답자만이 반응의 진위를 알기 때문에 익명의 검사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향은 응답자가 정말 그렇게 느끼는 생각을 반영하는 반면, 인상관리 척도의 문항들은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드러나는 행동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된 반응은 청중을 의식한 인상관리로 간주되었다(Sackeim & Gur, 1978). 자기기만과 인상관리의 구분은 사회적바람직성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밝히려는 여러 연구들에서 논의된 알파(Block, 1965)와 감마(Wiggins, 1964) 요인의 구분과 맥을 같이 한다. 알파요인은 전반적인 적응 요인으로 자기본위적 편파의 특징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자기기만(Sackeim & Gur, 1978), MMPI K(Meehl & Hathaway, 1946), 그리고 억압-민감화(Byrne, 1964) 척도들이 같

이 묶였다. 감마요인은 승인에 대한 욕구나 도덕적인 편파를 반영하며, Wiggins 사회적바람직성(Wiggins, 1959), Eysenck 성격검사 중 Lie(Eysenck & Eysenck, 1964) 척도들이 같이 묶였다(Paulhus & Reid, 1991).

국내에서도 Marlowe-Crowne 사회적바람직성 척도나 Paulhus의 이요인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한국문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결과들을 정확히 해석할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예를 억압자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적바람직성 척도(Crowne & Marlowe, 1964)가 방어성의 개인차를 반영한다고 알려지면서, 연구자들은 높은 사회적바람직성(방어성)과 낮은 불안 점수의 조합으로 억압자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Weinberger, Schwartz, & Davidson, 1979). 이렇게 구분된 억압자들은 낮은 불안 점수가 의미하듯 불쾌감이나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지만, 행동이나 생리적 지표에는 각성상태를 보였다(Weinberger & Davidson, 1994). 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Kiecolt-Glaser & Greenberg, 1983) 평가적 상황에서 억압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Brown et al., 1996). 이런 결과들은 방어성으로 인해 의식되거나 보고되지 않을 뿐이지 억압자들이 심리신체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억압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억압이 건강한 대처양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낮은 불안과 높은 사회적바람직성 점수로 구분된 억압자들이 정적정서, 높은 자존감, 능동적 대처, 낙관성 등 적응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권재영, 한성열, 1992; 옥수정, 2001; 이윤아, 이기학, 2004). 한국문화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의 욕구 절제를 중시한다면(최상진, 정태연, 2001), 순응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억압자가 한국문화에서 보다 잘 기능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자기보고 자료에만 의존한 점을 주목할 때,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억압자는 그 개념과 측정이 함의하듯, 방어성으로 인해 자신을 실제보다 적응적인 모습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억압자들은 관찰자가 평정한 바에 비해 본인의 불안 상

태를 과소평가하는 등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부호하고 인출하는데 편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rakshan & Eysenck, 1999). 따라서 사회적바람직성이 방어성을 측정하고 여기서 높은 점수로 억압자를 구분한 것이 타당하다면, 억압자들이 보고한 적응 점수 역시 방어성으로 인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자기기만적 고양 성향으로 인해 자신을 바람직하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편향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바람직성으로 인해 자기보고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결과가 오도될 가능성은 반응편향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부분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은 자신의 생각, 특성, 태도를 의식적 혹은 무의적으로 편향되게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다. 예언변인과 종속변인 모두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될 때 공통 변량(방어성의 개인차)이 인위적인 상관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오염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의 속성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바람직성은 참가자의 반응이 축소되거나 과장되는 문제를 넘어 변수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던 관계가 사회적바람직성을 통제하면 없어지기도 하며,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역제되거나 중재되는 경우도 있다(Rubin & Babbie, 2008).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성격검사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이 높아져 다차원의 요인구조가 하나의 공통 요인으로 바뀌는(Ellingson, Sackett, & Hough, 1999) 등 사회적바람직성은 변인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주요 차원인 자기기만적 고양이 높은 응답자들은 자신이 응답을 왜곡하지 않고 솔직히 반응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편향된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다(Booth-Kewley, Larson, & Miyoshi, 2007).

억압과 적응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논점은 사회적바람직성 또는 자기기만적 고양이 방어성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가이다.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바람직성과 불안 척도들을 사용하여 억압자집단과 비억압자집단을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반응에서 불안 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뿐, 사회적바람직

성이 억압집단을 타당성 있게 구분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최해연, 2008). 그렇다면 선행 연구결과들(옥수정, 2001; 이운아, 이기학, 2004; Brown, 1986; Taylor & Brown, 1988)에서 나타난 사회적바람직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는 해석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사회적바람직성 척도가 방어성을 측정하고 있다는 가정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사회적바람직성과 적응 사이의 정적인 상관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문화 맥락에서는 사회적바람직성이 자기기만이기보다 실제 바람직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심리적 적응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번안되어 사용되는 사회적바람직성 및 자기기만적 고양 척도가 원척도와 다른 심리속성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회적바람직성이 측정하는 바가 긍정성인지 방어성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바람직성 척도의 주요한 차원인 자기기만적 고양 개념이 실제로 방어성을 측정하고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고, 객관적 증거와 본인평정의 차이로 자기 고양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비교 검증한 연구도 부족한 바이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자기보고 설문방식을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기기만과 적응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자기기만적 고양과 방어기제가 관련 있는지 검증할 것이며, 연구 2에서는 자기 보고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과, 외부 증거(지인의 평정)와 차이 점수로 측정된 자기 고양의 현상을 각각 측정하여, 두 가지 측정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다른 측정도구를 적용한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여 자기기만적 고양 척도가 실제 방어성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여, 관련 연구결과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지침을 마련하고 자기기만적 고양에 갖는 방어성 또는 긍정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바람직성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자기기만적 고양 요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바람직성은 자기기만적고양과 인상관리 두 요인으로

구성된 BIDR-7(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Paulhus, 1998a)과 Marlowe-Crowne 사회적바람직성 척도(Crowne & Marlowe, 196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적응은 자존감과 심리증상 준거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다음 단계로, 자기기만적 고양에 방어성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기만적 고양에 심리적 적응을 예언하는데 방어기제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심리적 방어기제들은 위협적인 정보가 의식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자기기만은 이런 방어기제들에 기저하는 과정으로도 해석되었다(Gur & Sackeim, 1979; Hilgard, 1949). 방어기제는 무의식적 과정으로 그 개념화와 측정이 어려우나, 방어기제로 인해 파생된 행동들을 평가함으로써 방어기제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Hauser, 1986)에 따라, 자기기만적 고양과 관련성이 큰 '전능(omnipotence)'과 '부인(denial)'의 자기보고 측정도구를 포함하였다. 자기기만적 고양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도박중독자들의 방어기제를 연구한 Rosenthal(1986)은 원시적인 방어인 전능과 부인이 자기기만과 밀접히 관련됨을 제안하였다. 전능은 무기력에 대한 방어으로써 권력에 대한 환상으로 정의된다. 전능은 실제로는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실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자기기만적이다. 또한 사람들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그 경험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줄이기도 한다. 부인은 현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기만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시적 방어기제의 속성을 갖는다면, 자기기만적 고양과 심리적 적응의 정적인 관계는 방어성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바람직성을 구성하는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 차원이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한 후, 자기기만적 고양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방어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서울 및 경기도 소재 3개 대학에서 심리학 및 경영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4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14세( $SD = 2.45$ )였고, 여자 126명, 남자 120명이었다. 강의시간에 설문조사의 목적과 비밀 보장 및 연구 참가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20분 내외로 연구 참가는 수업과제로 인정되었다.

### 측정도구

#### 자기기만적 교양

자기기만적 교양의 측정을 위해 Paulhus(1997)가 개발한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BIDR-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기만적 교양과 인상관리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된다. BIDR-7은 5점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이분화(1 또는 0 점으로 변환)하여, 높은 점수가 문항에 과장되게 반응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Paulhus, 1998a). 그러나 BIDR-7을 다른 척도와 함께 사용하여 척도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이분화 채점보다 Likert식 방식이 장점이 있다(Booth-Kewley, Rosenfield, Edwards, & Alderton, 1992; 정보라, 2004에서 인용)는 선행연구에 따라 원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이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정보라, 2004)가 실시된 바 있으나, 자기기만의 속성 상 미묘한 의미 해석이나 표현방식도 척도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문장 표현을 위해 구지숙과 최혜연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척도를 새로이 변환하였다. 하위척도의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alpha$ 계수)는 자기기만적 교양 요인이 .68, 인상관리 요인이 .79이었다.

#### MC 사회적바람직성

Crowne과 Marlowe(1964)가 개발한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이하 MCSDS)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려는 경향을 측정하는데, 억압 연구에서는 방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33 문항으로 구성되며 예 혹은 아니오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용승(2000) 번안본을 사용하였고,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68이었다.

#### 방어기제

Bond, Gardner, Christian, & Sigal(1983)의 방어유형 질문지(Defense Style Questionnaire)를 조성호(1999)가 타당화한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K-DSQ) 중 일부를 사용했다. 원척도는 66문항의 Likert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6가지 방어기제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기만과 관련성이 논의된 전능과 부인의 두 하위 요인들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전능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65이었다. 부인 척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문항간 내적합치도가 .26으로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자존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Global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자기 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한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에 응답하게 된다. 이 훈진과 원호택(1995)의 번안본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9였다.

#### 심리 증상

간이증상검사(The Brief Symptom Inventory, Derogatis & Melisaratos, 1983)를 사용하여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간이정신진단검사지(Symptom Checklist 90-Revision; SCL 90-R)의 단축형으로, 9개의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정신증) 및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 수준(Global Severity Index: 이하 GSI)을 알 수 있다.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 내적합치도는 .97이었다.

**대인관계 문제**

Horowitz, Alden, Wiggins와 Pincus(2000)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을 보다 용이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심리치료에 오는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어려움들에 기초하여 Likert식 5점 척도 127 문항의 대인관계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위해, 지배와 친애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측정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항목-총점 상관 높은 32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IIP-32)을 사용하였다. IIP-32판은 '나에게는 ...하기 어렵다' 형태의 18문항의 대인관계 문제 어려움 척도와 '나는 ...을 너무 많이 한다'는 형태의 14문항으로 구성된 대인관계 문제 경험 척도가 포함된다. IIP-32는 이동귀, 박현주, P. Heppner, 그리고 M. Heppner(2002) 한국어로 번안되었다. 본 척도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요인은 .88, 대인관계 문제 경험 요인은 .78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자료 분석**

자기기만과 심리적 적응 및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SPSS 13.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기만적 고양과 심리적 적응 사이의 관계가 방어기제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자기기만적 고양을 중심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적응 및 방어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기기만적 고양은 적응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자기기만적 고양 점수가 클수록 높은 자존감( $r = .52, p < .001$ ), 적은 심리증상( $r = -.43, p < .001$ ) 및 적은 대인관계 문제의 인식과 경험( $r = -.52, r = -.36, p < .001$ )을 보고하였다. 한편, 인상관리 요인은 자기기만적 고양 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r = .37, p < .001$ ), 인상관리 점수와 심리증상 및 자존감과의 상관은 유의하나 자기기만적 고양과 이들의 관계에 비해 상관의 크기가 유의하게 작았다<sup>1)</sup>.

MC사회적바람직성은 선행연구들(Paulhus, 1984; Paulhus & Reid, 1991)과 일관되게 자기기만적 고양 및 인상관리 두 차원 모두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r = .55, r = .66, p < .001$ ).

방어기제 전능은 자기기만적 고양과는 상관관계가 강한( $r = .57, p < .001$ ) 데 비해, 인상관리와 MC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전능의 방어기제가 강할수록 심리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어려움은 적게, 특히 자존감을 높게( $r = .62, p < .001$ ) 보고한 반면 대인관계 문제 경험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기기만적 고양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선행연구들(Taylor & Brown, 1988; Sackeim, 1983)과 일관된 결과이다. 이에, 이러한 자기기만적 고양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방어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토하였다. 즉, 자기기만적 고양은 높은 사람들에게 전능의 방어기제가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으로 나이, 성별, 소속 대학 변인들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상호작용 검증을 위한 변인들로 자기기만과 방어기제를 투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기만×방어기제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기기만과 방어기제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기만적 고양은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beta = .57, t = 3.28, p < .001$ ), 방어기제도 자존감에 대한 유의한 증분설명량을 나타내었다( $\beta = 1.12, t = 3.42, p < .001$ ).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자기기만적 고양과 방어기제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88, t = -2.00, p < .05$ ). 즉, 전능의 방어기제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어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고양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결과는 표 2

1)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correlations from the same sample :  
 $t = (r_{xy} - r_{zy}) * \sqrt{\{(n-3)(1+r_{xz})\} / \{2(1-r_{xy}^2 - r_{xz}^2 - r_{zy}^2) + 2r_{xy} * r_{xz} * r_{zy}\}}$  [http : //www2.chass.ncsu.edu/garson/PA765/correl.htm]

표 1. 자기기만적고양, 심리적 적응, 방어기제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표

	1	2	3	4	5	6	7	M	SD
1. 자기기만적 고양								4.08	.57
2. 인상관리	.37**							3.76	.72
3. MC사회적바람직성	.55*	.66**						3.84	.54
4. 전반적 심리증상	-.43**	-.25**	-.39**					1.86	.63
5. 자존감	.52**	.15*	.36**	-.49**				4.00	.63
6. 대인관계 문제 어려움	-.52**	-.11	-.36**	.49**	-.58**			2.35	.61
7. 대인관계 문제 경험	-.36**	-.37**	-.29**	.44**	-.28**	.27**		2.34	.50
8. 전능	.57**	.19**	.37**	-.20**	.62**	-.41**	-.06	3.87	1.15

\* $p < .05$ , \*\* $p < .001$ ,  $N = 256$

표 2. 자기기만적 고양과 자존감 간에 방어성의 조절효과

	$\beta$	$t$	$\Delta R^2$
1. 성별	-.14	-2.62*	
나이	.13	2.50*	.05**
소속	.07	1.35	
2. 자기기만적 고양 방어기제(전능)	.57 1.12	3.28** 3.42**	.40**
3. 자기기만적 고양 × 방어기제(전능)	-.88	-2.00*	.01*

\* $p < .05$ , \*\* $p < .001$

표 3. 자기기만적 고양과 적응 변인들 간의 상관 및 편상관

	zero-order	방어기제 통제 partial
자존감	.52**	.26**
심리증상	-.43**	-.39**
대인관계 문제 어려움	-.52**	-.39**
대인관계 문제 경험	-.36**	-.39**

\* $p < .05$ , \*\* $p < .001$

에 제시하였다.

자존감의 경우 자기기만적 고양의 영향을 방어기제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자기기만적 고양과 방어기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기만적 고양과 적응 변인들 사이의 상관과 방어기제를 통제한 편상관을 비교하였을 때, 방어기제를 통제할 경우 자기기만적 고양과 자존감 및 대

인관계 문제 어려움 사이의 상관은 그 크기가 감소하였다. 반면 심리증상과 대인관계 문제 경험 측면에서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변량에서 방어기제의 변량을 통제하여도 상관 크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첫째 자기기만적 고양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방어성이 관련된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음과, 둘째 적응 영역에 따라 자기기만적 고양의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자존감이 자기개념과 직접 관련되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기만적 고양의 더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측정방법이나 참가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복 검증을 통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연구 2

자기기만적 고양과 심리적 적응 사이의 정적인 상관의 의미는 그 자체로는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에 관한 한 가지 관점은, 예언변인과 종속변인 모두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두 변인 모두에 자기기만적 고양의 공통 변량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인위적인 상관관계를 만들어 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기의 단점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적응상태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 이는 방어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안적인 관점은, 자기기만적 고양의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긍정성이라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려는

경향이기보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경향성이 사회적 요구와 부합할 때 심리적 적응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언변인과 종속변인 모두 자기보고 방식으로만 측정할 경우, 긍정성이든 방어성이든, 자기기만과 적응 사이에 나타난 관계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본인평정이 타인평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본인평정-타인평정의 차이가 어떤 특징과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만약 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속성 때문에 적응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 이러한 실제 바람직한 속성이 타인에게도 인식되어, 자기-타인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비적응적 결과와 관련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자기기만적 고양의 방어적 동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한다면, 자기와 타인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게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 차이와 연결된 결과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외부 준거 대비 자기평정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부적응적인 결과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John & Robins, 1994; Kurt & Paulhus, 2008; Paulhus, 1998)들은 후자의 가능성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와 상호작용이 있는 지인이 평정한 참가자의 대인관계 문제 정도를 외부 준거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자기기만적 고양은 스스로 평가한 개인적 적응보다 타인이 평가한 관계적 적응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urt & Paulhus, 2008; Paulhus, 1998)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은 인간의 적응에 주요한 결정인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1에서 자존감과는 달리 대인관계 문제 경험은 방어기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준거변인으로 사용하기 적절하다 판단되었다. 셋째, 대인관계 문제는 자존감이나 심리증상과 같은 개인적 적응 영역에 비해 타인이 보다 정확히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이다. 낯선 참가자들 간의 짧은 상호작용에 근거해 성격 특질을 평가하는 연구 설계에서 관찰자 평정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Campbell & Fehr, 1990)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잘 알고 최근 3개월 내 상호작용이 있었던 지인을 외부 평가자로 설정하였다.

## 방 법

### 참가자와 절차

자료 수집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서울 소재 2개 대학 심리학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강의시간을 할애 받아 연구의 목적, 설문 응답 방식, 그리고 2단계 자료수집 계획을 설명하고 연구설명서 및 연구 참가에 대한 간소한 답례품을 나누어주었다. 참가자들은 수업시간에 연구를 소개받은 후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가하였다. 연구 목적, 참가자 권리 및 설문응답 방식을 안내받고 연구참가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응하였으며 설문응답에는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13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6.31세( $SD = 9.06$ )이고, 남자가 82명과 여자가 52명이었다. 이 중 115명은 대학생이고 23명은 교사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연구에 참가하여 이메일 주소를 남겨준 참가자들에게 ‘3개월 내에 만난 적이 있는 자신을 잘 아는 지인’ 1명의 연구 참가를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2단계 참가자(1단계 참가자의 지인)를 위한 연구설명서를 첨부하였고, 연구설명서에 기재된 사이트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단계 참가자의 지인들 10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6.73세( $SD = 10.02$ )로, 남자가 62명이고 여자가 41명이었다. 1단계 참가자와 2단계 참가자(1단계 참가자의 지인)들은 평균 51.74개월( $SD = 66.21$ ) 동안 알아온 사이이며 친구(45%), 가족 및 친척(28%), 연인(15%), 선후배(11%)의 관계였다.

### 절차 및 측정 도구

1단계 참가자들은 자기기만적 고양(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BIDR-7, Paulhus, 1998a), 정서적 능력(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Boyatzis, 2001), 자존감(Global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심리증상(The Brief Symptom Inventory: Derogatis & Melisaratos, 1983),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경험(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32:

Horowitz, Alden, Wiggins & Pincus, 2000) 척도들이 포함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2에 추가된 정서적 능력 척도(Boyatzis, 2001)는 경청, 민감성 등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고 Likert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82이었다.

2단계 참가자들은 대인관계 문제 경험 척도(Horowitz, Alden, Wiggins & Pincus, 2000) 14문항과 정서적 능력 척도(Boyatzis, 2001) 7문항에 대해 1단계 참가자의 평소 모습에 대한 관찰 평정을 하였다. 2단계 참가자들의 평정을 위해서 지시문의 일부[“이 특징이 친구(선배, 후배, 동생, 형..)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맞은 숫자에 표기해 주십시오”]를 바꾸어 자신이 아닌 1단계 참가자에 대한 평정임을 설명하였다.

####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준거 대비 자기 고양

타인(2단계 참가자)이 1단계 참가자들에 대해 평정한 대인관계 문제 점수에서 본인(1단계 참가자) 스스로 평정한 대인관계 문제 점수를 빼어, 준거 대비 자기 고양 점수를 계산하였다. 준거 대비 자기 고양은 다른 사람이 지각하는 대인관계 문제가 본인이 보고하는 정도보다 크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관찰한 것보다 자신의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보고한다는 의미이다.

### 결과 및 논의

연구 참가자들의 관계 유형(친구, 가족 및 친척, 연인, 선후배)에 따라, 대인관계문제 및 정서적 능력의 타인평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나 집단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인관계 문제 및 정서적 능력에 대한 타인평정에서, 알고 지낸 기간 및 평가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이 관찰한 것보다 본인 스스로 대인관계 문제 경험을 보다 많이 보고하였다( $t = 2.92, p < .001$ ). 정서적 능력에서는 타인평정과 본인평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참가자 중 32%의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이 관찰한 것보다 스스로 보고한 대인관계 문제가 적은 자기고양 경향을 나타내었고, 준거 대비 자기고양은 평균  $-.25(SD = .88)$ 이었

다. 자기가 지각한 대인관계 문제와 타인이 지각한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 = -.25, p < .001$ ).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통하여 자기기만적 고양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준거 대비 자기고양 점수가 크다는 것은 특정인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평정한 문제 정도보다 본인의 평정한 문제 정도가 작다는 의미이다. 이 준거 대비 자기고양 정도는 자기보고 질문지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 = .27, p < .001$ ). 다시 말하면, 자신의 대인관계 문제 경험에 대한 보고가 타인의 관찰한 바와 차이가 있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기술하려는 자기기만적 고양 경향도 크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보고 질문지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은 본인이 평정한 정서적 능력( $r = .43, p < .001$ )이나 대인관계 문제( $r = -.35, p < .001$ )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평정한 정서적 능력이나 대인관계 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자기 관련 능력이나 적응에 대한 자기-보고에만 작용한 현상으로, 타인이 역시 인식하고 반응하는 변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즉, 자기기만적 고양은 높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데, 이러한 긍정적 특성을 타인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준거 대비 자기고양과 자기보고 설문지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 간의 관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준거 대비 자기고양과 자기기만적 고양의 자기 및 타인이 지각한 정서적 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상관

	준거 대비 자기 고양	자기기만적 고양
준거 대비 자기 고양		.27**
자기지각 정서적 능력	.16	.43**
타인지각 정서적 능력	-.08	.11
자기지각 대인관계 문제	-.75**	-.35**
타인지각 대인관계 문제	.82**	.04

\* $p < .05$ , \*\* $p < .001$ ,  $N=138$

표 5. 자기-타인 인식 차이와 심리증상 및 자존감과의 관계

	준거 대비 자기-고양	자기기만적 고양
심리증상	-.32**	-.43**
자존감	.15	.39**

\* $p < .05$ , \*\* $p < .001$

이렇게 상이한 방식으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 경향이 심리증상 및 자존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1과 일관되게 자기기만적 고양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준거 대비 자기 고양의 경우에도, 타인평정에 비해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평정할수록,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도 유의하게 적게 보고하였다( $r = -.32, p < .001$ ). 즉, 다른 사람이 보는 대인관계 문제가 더 많을수록 정작 본인은 심리적 어려움이 적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한편, 자기보고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과 심리증상 및 자존감 간의 상관값에 비해, 준거 대비 자기고양과 이들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았다. 특히 자존감과는 상관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고양과 적응의 관계에 대한 이전의 비밀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설명할 가능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즉 자기보고 질문지로 측정할 경우 자기기만적 고양과 자존감은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타인이 보는 자신과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간의 괴리로 측정된 자기-고양의 경우 자존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관련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 종합 논의

긍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기상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는, 종종 우리를 자기기만적 고양에 빠지게 한다(Dunning, 1999; Gur & Sackeim, 1979; Klein & Kunda, 1992). 자기기만적 고양은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오는 수치심과 불안, 분노와 우울 같은 정서적 고통을 방지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고, 심리적 고통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현실에 대처하고 목표에 다가가도록 자존감을 끌어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할 현실을 부정하게 하기도 한다. 자기기만은 자존감의 유지를 도와 우울 등의 정신병리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Paulhus, 1998; Robin & Beer, 2001). 이렇듯 자기기만적 고양은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자기기만적 고양의 보편성과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 이 개념과 그 함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에서 자기기만적 고양의 실제 방어성을 반영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최혜연, 2008), 자기기만적 고양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Ellingson, Sackett, & Hough, 1999) 측면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맥락에서 자기기만적 고양 척도가 어떤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는지 검증 과정을 통해 이 현상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 Paulhus(1998a)가 개발한 바람직성척도(BIDR-7)로 측정된, 정직하게 반응하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자기기만적 고양 경향은 적응 지표들과 모두 유의하고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게, 자기기만적 고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제시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자기기만적 고양과 심리적 적응(자존감)의 관계는 전능의 방어기에 의해 조절되었다.

자기기만적 고양의 방어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기만적 고양의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경험에 대한 본인평정과 타인평정의 점수 차이로 준거 대비 자기고양을 측정 후, 이를 자기보고 방법으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 개념과 비교분석하였다. 준거 대비 자기고양은 설문지로 측정된 자기기만적 고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기만적 고양은 본인이 평정한 정서적 능력이나 대인관계 문제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타인이 평정한 정서적 능력 및 대인관계 문제 정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자기 평

가에만 관여되는 속성이며 타인의 인식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자기기만적 고양은 특정 변인을 보고할 때 개인 내에서 그 긍정성을 과장하는 방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바람직성 척도 (Paulhus, 1998a)가 어떤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는지, 특히 실제 고양적이고 방어적인 속성을 가지는지 검증함으로써, 관련 연구결과들을 해석할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자기기만적 고양의 영향은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질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낙관주의, 희망, 긍정적서와 같은 긍정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특성들과 관련된 결과가 자기기만적 고양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긍정심리학의 연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염두에 들 점은, 자기기만적 고양 개념이 방어성을 내포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기만적 고양과 적응의 정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기기만적 고양과 적응 사이의 관계는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실제 적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높은 자존감과 낙관성과 같은 특질들이 갖는 자기기만적 고양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내도록 돕고 심리적 적응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Johnson, 1995) 자기기만적 고양과 적응의 관계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Kurt & Paulhus, 2008).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궁극적으로 역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현실의 측정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명확한 논의를 하기 어렵다. 자기기만적 고양의 역할을 밝히기는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지닌 다음과 같은 제약점들을 개선하며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기기만적 고양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기기만적 고양은 방어기제부터 낙관성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현상과 연결된다. 다양한 개념들에 기저하는 자기기만적 고양 현상들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개념화가 가능한지, 혹은 보다 정교

하게 개념을 세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기기만적 고양 현상을 측정하였다. 그런데 자기기만의 수준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자기기만의 효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도박이나 알콜 중독자, 범죄자 집단, 중대질병환자 집단에서는 자기기만의 수준과 형태는 일반인과 확연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적응상태에 대한 보고의 정확성은 실제 능력 및 상위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Everson & Tobias, 1998), 여기에는 연령이나 교육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집단들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자기기만적 고양의 구체적으로 연구된다면 각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 직면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자기기만적 고양의 심리측정적 속성, 특히 인간의 적응과 부적응을 예언하는 기능적 속성은 자기기만이 작용하는 조건을 면밀하게 규정할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객관적 준거 및 적응지표를 포함하여 자기기만적 고양의 역할을 구체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자기고양 연구들은 객관적인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각각의 시도는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John & Robins, 1994). 자기평정 방식이 자기고양을 하는 사람과 실제 평균 이상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타인평정을 포함하였으나(Paulhus, 1998; Robins & John, 1997) 본인이 자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본인평정이 더 정확하며 타인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Markus, Smith, & Moreland,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관계 내에서 본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지인의 평정을 준거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지인을 포함하여 평정의 신뢰성을 계산하였다라면 준거의 객관성을 보다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기만적 고양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객관적 현실의 측정치를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성적이나 휴학율(Robins & Beer, 2001), 전문가 평정(John & Robin, 1994), 조직 내에서 업무성과 또는 면접관의 평

정과 합격 여부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적응영역을 구체화시키고 자기기만 고양의 각각의 영역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갖는지 밝혀가는 노력을 통해 긍정적 사고와 현실적 인식의 균형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2008).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 성척도(SDS-17)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가정 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38, 5-32.
- 권재영, 한성열(1992). 억압과 정서와의 관계연구. 한국 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옥수정(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 조절 전략.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윤아, 이기학(2004).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적응적/비 적응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87-200.
- 정보라(2004).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조성호(1999).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15-137.
- 최상진, 정태연(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해연(2008). 한국인에게는 억압이 적응적인가?: 억압 측정의 타당성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179-216.
- 한성열(2003).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79-99.
- Alicke, M. D., Klotz, M L., Breitenbecher, D. L., Yurak, T. J., & Vredenburg, D. S. (1995). Personal contact, individuation, and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04-825.
- Assendorf, J. A., & Scherer, K. R. (1983). The discrepant repressor: Differentiation between low anxiety, high anxiety, and repression of anxiety by autonomic-facial-verbal patterns of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334-1346.
- Block, J. (1965). *The challenge of response set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Bond, M., Gardner, S. T., Christia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 Booth-Kewley, S., Larson, G. E., & Miyoshi, D. K. (2007). Social desirability effects on computerized and paper and pencil questionnair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23, 463-477.
- Boyatzis, R. E. (2001). How and why individuals are able to develop emotional intelligence. In C. Cherniss & D. Goleman (Eds.), *The emotionally intelligent workplace: How to select for, measure, and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in individuals, groups, and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4, 353-376.
- Brown, L., Tomarken, A., Orth, D., Loosen, P., Kalin, N., & Davidson, R.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repressive-defensiveness predict basal salivary cortisol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62-368.
- Byrne, D. (1964). *Repression-sensitization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170-220. New York: Academic Press.
- Campbell, J. 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22-133.
- Colvin, C. R., & Block, J. (1994). Do positive illusions fo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 Taylor and Brown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ooper, J., & Fazio, R. H. (1984). A new look at dissonance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229-266. New York: Academic Press.
- Crowne, D. P., & Marlowe, D. (1964). *The approval motive*. New York: Wiley.
- Derakshan, N., & Eysenck, M. W. (1999). Are repressors self-deceivers or other-deceivers? *Cognition and Emotion*, 13(1), 1-18.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 595-605.
- Dunning, D. (1999). A newer look: Motivated social cognition and the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ocial concepts. *Psychological Inquiry*, 10, 1-11.
- Ellingson, J. E., Sackett, P. R., & Hough, L. M. (1999). Social desirability corrections in personality measurement: Issues of applicant comparison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155-166.
- Eysenck, H.J., & Eysenck, S.B.G. (1964).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 Everson, H., & Tobias, S. (1998). The ability to estimate knowledge and performance in college: A metacognitive analysis. *Instructional Science*, 26, 65-79.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Gur, R. C., & Sackeim, H. A. (1979). Self-deception: A concept in search of a phenomen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7-169.
- Hauser, S. T. (1986). Conceptual and empirical dilemmas in the assessment of defense. In G. E. Vallant(Ed.),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pp.90-99).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Hilgard, E. R. (1949). Human motives and the concept of the self. *American Psychologist*, 4, 374-382.
- Horowitz, L. M.,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2000). *IIP: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manual*.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Johnson, E. A. (1995). Self-deceptive responses to threat: Adaptive only in ambiguous circumstances. *Journal of Personality*, 63, 759 - 791.
- Kiecolt-Glaser & Greenberg, B. (1983). On the use of physiological measures in assertion research.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 5, 97-109.
- Klein, W. M., & Kunda, Z. (1992). Motivated person perception: Constructing justifications for desired belief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 145-160.
- Kurt, A. & Paulhus D. L. (2008). Moderators of the adaptiveness of self-enhancement: Operationalization, outcome domai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839 - 853.
- Markus, H. R., Smith, j., & Moreland, R. L. (1985). Role of the self-concept in the perception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495-1512..
- Meehl, P. E., & Hathaway, S. R. (1946). The K factor as a suppressor variable in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0, 525-564.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ischel, T. (1974). Understanding neurotic behavior:

- From "mechanism" to "intentionality." In T. Mischel (Ed.), *Understanding other persons*.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 Mischel, P. M.,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2), 203-212.
- Myers D. G. (1982). *The Inflated Self* The Chritian Century. 1227-1229
- Paulhus, D.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98 - 609.
- Paulhus, D. L. (1990).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In J. E. Robinson, P. R. Shaver, & L.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psychological attitudes* (pp. 17-5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Paulhus, D. L. (1998a). Manual for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BIDR-7). Toronto/Buffalo: Multi-Health systems.
- Paulhus, D. L. (1998).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adaptiveness of trait self-enhancement: A mixed bl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97 - 1208.
- Paulhus, D. L., & Reid, D. B. (1991). Enhancement and denial in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307-371.
- Robins, R. W., & John, O. P. (1997). The quest for self-insight: Theory and research on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649-679). New York: Academic Press.
-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40-35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thal, R. J. (1986). The pathological gambler's system for self-deception.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2*(2), 108-120.
- Rubin, A., Babbie, E. R.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elmont, CA: Thompson Books/Cole.
- Sackeim, H. A. (1983) Self-decep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 adaptive value of lying to oneself. In: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 theory*, vol. 1, ed. J. Masling. The Analytic Press.
- Sackeim, H. A. & Gur, R. (1978). Self-deception, self-confrontation, and consciousness. In: *Consciousness and self-regulation*, vol. 2, ed. G. Schwartz & D. Shapiro. Plenum Press.
- Sackeim, H. A., & Gur, R. C. (1979). Self-deception, otherdeception, and self-reporte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213-215.
- Samenow, S. E. (1989). *Before it's too late*. New York: Times Books.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tober, J. (1999).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Development and first results on reliability and validity]. *Diagnostica, 45*, 173 - 177.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einberger, D. A., & Davidson, M. N. (1994). Styles of inhibiting emotional expression: Distinguishing repressive coping from impression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62*, 587 - 613.
- Weinberger, D. A., Schwartz, G. E., & Davidson, J. R. (1979). Low-anxious, high-anxious, and repressive coping styles: Psychometric patterns and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69-380.

Wiggins, J. S. (1959). Interrelationships among MMPI measures of dissimulation under standard and social desirability instruction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3*, 419-427.

Wiggins, J. S. (1964). Convergences among stylistic measures from objective personality tes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4*, 551-562.

## Defensiveness within Self Deceptive Enhancement

Haeyun Choi  
Yonsei University

Jasook Koo  
Kyung Hee University

Self-deceptive enhancement(SDE) has been foun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misleading research results. There also have been arguments on the psychometric validity of this construct.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SDE is measuring defensiveness distorting reality or positivity predicting psychological adaptiveness. In study 1, a questionnaire including self-report inventories on self-deceptive enhancement(BIDR-7; Paulhus, 1998a), defense mechanism, and adaptation index was administered to a group of 246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ed substantial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D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dex, which replicated previous result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DE and adaptation(self-esteem) was moderated by defense mechanism(omnipotence). In study 2, in order to see if the SDE is related to distortion of reality, we compared two measures of self-enhancement: self-reported SDE vs. the discrepancy between self-rated and other-rated interpersonal problems(criterion-based self enhancement). A total of 105 pairs of respondents participated in study 2. The two measures of self enhancement were positively related. Self-reported SDE enhanced self perception of emotional capacity and interpersonal adaptation, but was not related to other perception of them. The result implies that people with high SDE evaluate themselves more highly in processing self-relevant information, positively distorting the reality. Also, the self-reported SDE reduced the negative psychological symptoms and improved self-esteem, while the criterion based self enhancement did not. The result also suggests that the self-reported SDE is related to defensiveness.

*Keywords* : self deception, self enhancement, social desirability, defensiveness, positivity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0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11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1월 24일